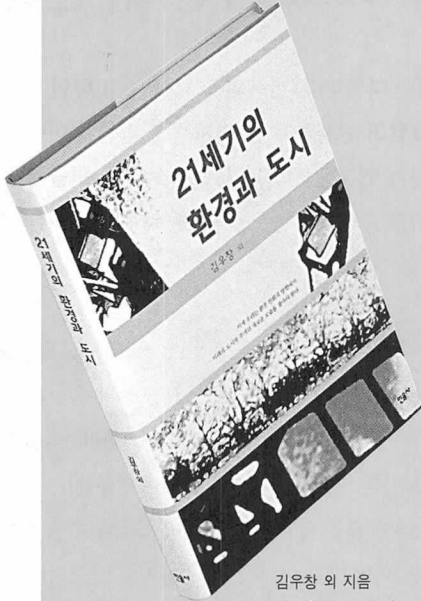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관해 논의 도시계획가를 위한 유용한 지침서

《21세기의 환경과 도시》



김우창 외 지음
민음사/A5신/338면/15,000원

세기말에 교보생명 교육문화 재단이 '21세기의 삶과 주거환경의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철학자·환경전문가·환경운동가·도시계획가·건축가 등이 모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토론된 글을 모은 이 책은 21세기초 우리 삶의 질, 도시와 주거환경의 지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외적 요인에 의해 끌려만 왔던 20세기는 우리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황폐화시켰다. 가치기준의 모호함과 시대의 변화에 대한 느슨한 대응, 그리고 경제 논리에 의한 개발이나 주택생산 체계 등으로 도시와 주거환경은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에게 외면당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듯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도시와 주거환경은 '지구호'를 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각한 과제며 책임의식이 강조되는 분야다. 이 책은 풍요로운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환경에 대한 새로운 의식 전환'이라는 명제로 환경을 읽는 방식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깊은 마음의 생태학>에서 김우창 교수는 도시의 모체인 현대 산업사회를 떠나서 자연으로 회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주장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전환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반상업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전체구성을 살펴 보면, 1부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일상 환경'은 오늘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을, 2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와 과제'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기준이나 목표를 다뤘다. 그리고 3부 '주거환경의 재구축을 위한 실천 전략의 모색'에서는 21세기의 주거환경에 대한 예측과 21세기 주거환경 계획의 실천 대안을, 4부 '주거환경의 지속성을 향하여'는 새로운 주거환경의 규범과 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실천 전략을 언급했다.

필자들은 단순한 이론 전개보다는 21세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의 핵심을 분석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와 가족, 단위 주거, 단지개발, 도시 등의 개별 환경단위와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실천방안 및 대안이 실무 계획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실천 대안은 환경친화적인 것이 특징이다.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돼 왔지만 인간 삶의 환경을 주제로 한 종합적인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 책은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내용을 엮은 탓에 다소 산만하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인간을 담고 있는 환경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나 간과하기 쉬운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점에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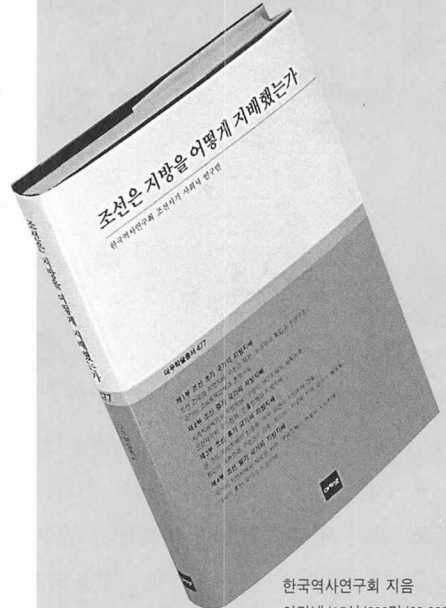
삶의 근거지인 도시환경과 주거문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도시계획가를 늘 괴롭혀 왔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환경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방법에 대한 폭넓은 제안은 21세기를 가꾸어가는 도시계획가들에게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동정근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저서 《형태의 심리》 외.

조선의 지방지배 역사적으로 해명 국가와 사회 이분법적 구분은 무리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아카넷/A5신/380면/20,000원

이 책은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반이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1993)에 이어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란 주제로 진행해 왔던 공동연구의 두번째 성과다. 공동연구는 사회사 연구성과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출발한다. 즉 '조선시기 민의 성장과 향촌사회지배층의 동향'이란 주제가 '국가의 대민(對民) 지배방식과 지배내용'의 분야와 통일적이며 유기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것이다.

연구팀은 조선국가의 지방 지배제도와 기구는 물론 부세·교육·제의·진휼·사법 및 행형(行刑) 등 지방지배의 구체적 내용이나 정책,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감독·통제 및 파악의 수단과 운용방식 등을 해명체제로 삼았다. 그런데 각각의 주제가 시기마다 명료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집권 지배세력의 성격이나 사회적 계급관계가 사회경제적 단계에 따라 다르며, 국가의 지방지배방식이나 중심적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사연구반은 조선시기를 14~5세기의 초기, 16~7세기의 중기, 18세기의 후기, 19세기의 말기로 구분해 이상의 주제를 4부로 나눠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는 군현제·외관제(外官制)와 향교 등을 통해 조선국가의 일원적·직접적 지방지배를 위한 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 및 성격을 고찰했으며, 제2부는 사법·행정·제의·진휼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재지사족의 지방지배 방식과 실재를 서술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어사제도와 지지·지도제작 등을 부각하면서 수령 주도의 관치적 지방통치가 완숙하게 발전했음을 논증하고 제4부는 부세문제를 중심으로 국·민 갈등의 폭발과 지방지배질서의 변화모색을 주체의 성격과 지향에 따라 두 경로로 정리하고 있다.

필자들은 국가가 지방을 지배한 시대적 변천양상을 제도사·정치사·정책사의 수준에서 고찰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각 시기 '민의 성장'과 '지방세력의 동향' 그리고 '국가권력의 추이와 집권세력의 성격'과 통일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사·운동사와의 접점을 넘어 정치사와의 접점을 찾는' 사회사연구로 그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는 연구자들의 자평에 동의한다.

다만 이 방면에 조예가 없는 평자로서 첨언하자면, 국가의 지방지배 강화와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성질이 아니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 국가와 사회는 대립항(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국가의 지방지배 통제력은 계기적 증대과정을 밟았으며, 지방도 그에 상응해 지방의 자치와 이해를 담당하는 세력이 사회적 성격을 달리하며 등장하고 활동했다. 그리고 그 외연은 확장됐다. 말기에 이르러 민에 의한 새로운 자치질서의 모색은 그 합일임과 동시에 필연 과정이었다. 일제의 지방지배는 이에 대한 부정이며 억압이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 전공이 서로 다른 10여명의 연구자가 여러 지방에 나뉘어 있으면서도 거의 10년 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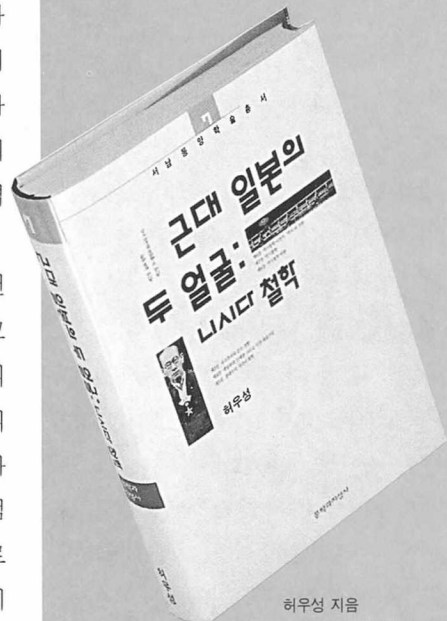
이종범

조선대 역사철학부 교수. 저서 《자료 한국근현대사입문》(공편), 논문 〈19세기 말 20세기 초 향촌사회구조와 조세 제도의 개편〉 외.

서평

니시다의 철학적 세계관 균형있게 조명 국가주의 사상 분석은 미흡해

《근대 일본의 두 얼굴 : 니시다 철학》



허우성 지음
문학과지성사/A5신/548면/20,000원

일본철학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허우성 교수의 일본철학자와 그 사상 연구는 본격적인 일본철학연구의 새 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왜 '일본철학'인가? 이 물음에 대해 저자는 일본이라는 타자를 알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타자에 대한 이해는 자기이해의 일부기에 타자이해 없는 자기이해는 원리상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오해와 폭력을 동반하기 쉽다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이해부족이 초래한 역사적인 아픔은 조선과 중국의 역사를 무시한 니시다의 지애설(知愛說)의 한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저자는 니시다가 실천하지 못한 지애설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일본의 철학, 그리고 니시다 철학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느끼기에 따라서는 다소의 논리적 비약이나 학문의 객관성 확보에 흠집을 초래할 수 있는 듯한 표현이기는 하나, 일본의 철학자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 같다.

저자에 따르면, 니시다는 자신의 인생 초기부터 죽을 때까지 생명과 논리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온 세계적 철학자이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황과 국체, 그리고 전쟁을 옹호한 가장 제국주의적인 철학자다. 니시다의 이 '두개의 얼굴'에 대해 저자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그의 철학적 세계관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니시다의 철학세계를 자각주의와 순수경험의 철학, 절대주의 자각의 철학, 그리고 역사·정치철학의 3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발전단계에서 그의 철학세계를 대변할 만한 일련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통해 그의 일생의 철학적 사유세계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생명은 무엇이고, 논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평생의 화두로 삼았던 니시다의 생명철학 세계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니시다 철학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했고, 이 작업을 통해 니시다 철학의 근본을 이해하려고 했다. 저자의 이런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니시다의 역사철학이 안고 있는 한계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니시다의 후기철학은 철저하게 국가주의 사상으로 경사돼 있다. 이런 그의 역사철학에 대해 저자는 위기적 상황에서 감지되는 생존과 생육의 욕구는 철학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니시다가 본격적으로 철학적 사색에 몰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공고롭게도 천황제 국가체제가 완성된 메이지 2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은 이미 일본의 정신사상에서 '일본에의 회귀'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던 시기였다.

저자의 지적에 따르면, 니시다는 집요한 성찰과 더불어 시대적 상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니시다의 철학적 사색은 이미 국가주의 사상으로 경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는 지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타자이해를 위한 객관적인 조건을 이미 상실하고 출발했는지도 모른다.

김필동

세명대 일문과 교수. 저서 《근대일본의 출발》《리액션의 예술 일본대중문화, 그때 일본은 울었다》, 역서 《일본인의 집단 의식》 외.